

제4장 화양면(華陽面)

서천군에서 간척지가 가장 많고 마서면과 더불어 2대 곡창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화양면은 차령산맥의 말단에 위치하여 북동쪽으로 일광산, 기린봉, 건지산, 어성산으로 이어지는 구릉이 있으며, 서쪽으로 마서면과 인접한 비옥한 평야가 전개되어 기산평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으로는 금강과 인접하여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상적인 전원지대이며, 전라북도 옥구군과 금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9km, 남북으로 4.8km에 이르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건설중에 있으며, 논농사 이외에도 모시부업단지과 양송이버섯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다.

화양면은 백제시대 마산현에 속한 금강변에 자리잡아 그 시절부터 뗏목을 타는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 지역은 황수가 흐른다 하여 황해의 이름을 낳게 한 곳이기도 하다.

신라시대에는 가림군의 마산현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부터 한산군에 속해 어업의 고장으로 크게 각광을 받던 곳이다. 조선 말 한산군의 지역으로 한산읍에서 남쪽에 위치했다 하여 남하면이라 부르며, 포원 외 1개리를 관할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상면의 망천 외 10개 동리와 동하면의 화촌 외 8개동리, 서하면의 내동리 일부와 서천군 동부면의 모군리를 통합하여 이 지역에 위치한 화양산의 이름을 따서 화양면 이라 했다. 봉명, 고마, 창외, 금당, 장상, 망월, 월산, 구동, 죽산, 화촌, 남성, 대하, 대등, 완포, 활동, 와초, 기북, 보현, 추동, 옥포 등 20개리를 관할 하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 구동리를 한산면에 편입시키고 19개리를 관할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산수가 수려하여 정착하는 선비들이 많아졌으며, 조선 초부터는 속칭 진개로 통하는 어업의 번성지로 크게 부촌을 이루었던 곳이기도 하다. 고려 말 오랑캐의 침입이 있을 때 최무선 장군의 화법으로 왜선 수백 척을 한꺼번에 불태우는 진개싸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수군의 기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일로 일컬어지고 있다. 금강변의 경치가 으뜸이어서 화양면 소재지에 위치한 원산은 한산팔경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역을 개발하고 정착하여 오랜 세월 뿌리내린 씨족 분포를 살펴보면 나주 정씨, 교하 노씨, 양천 허씨, 나주 임씨, 한산 이씨, 안동 권씨, 남원 양씨, 김해 김씨와 기타 성씨로 구성되어 있으며, 죽산리가 경도 126°51' 으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장상리가 경도 126°44' 으로 가장 서쪽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망월리가 북위 36°1', 북쪽으로 대등리가 북위 36°4' 으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화양면의 남쪽은 금강 본류로 조차가 약 5m로 해안 간척지가 확대되었고, 17개리의 간척지가 있는데, 이는 근대적인 공법으로 간척, 오늘의 곡창이 되었다. 특히 고마리는 간척 전의 섬 위에 지금은 마을을 형성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다.

교육기관은 금호분교가 화양초등학교로 흡수되면서 화양초등학교와 금성초등학교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었으나 2008년 2월말로 금성초등학교가 화양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금강하구둑이 건설되기 전 옥포리에서는 화양환이라는 나룻배가 군산과 장항을 넘나들며 지역간의 교류를 이루어주던

곳이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1천3백37세대에 3천81명이 거주하고 있다.

- 옥포리(玉浦里)

옥포리는 1리와 2리, 3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포원리, 다고리, 옥원리와 남상리의 한암리 일부를 합하여 옥산과 포원의 이름을 따서 옥포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이 마을은 화양면의 행정 중심지로 면사무소, 금강지구대 화양분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을 도루메라고 하는데 도루메 서남쪽으로 둥근 산이 있어 이 산을 원산이라 부른다. 산 위에 수고정(戍鼓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바다에서 들려오는 바닷물 소리가 북소리처럼 번지는 곳에 정자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있는 정자이다. 1980년도에 이 산에 팔각정이 세워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루메 남쪽에 나루터가 있는데, 이 나루터를 도루메 나루터라고 부른다. 금강 하구의 나루터로 금강을 사이에 두고 군산과 장항 등 육지를 왕래하던 나루터 이다. 50~60년대 여름이면 이곳에서 장항 백사장으로 모래찜을 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다. 저녁에 물때에 맞춰 목선을 이용 장항백사장으로 가서 백사장에서 아침을 지어먹고 모래찜을 하고 오던 곳이다.

지금 화양과출소 자리는 조선시대 해창이 있었다 하는데, 나루터가 있었던 이곳에 세곡을 쌓아 놓고 손쉽게 운반하기 위함이었다.

육원 북쪽에 있는 마을을 황소매라 하는데, 숲이 우거져서 소가 잘되는 마을이라 그렇게 불렀다 하며, 지형 또한 소가 앉아 있는 것 같은 형태라 한다.

도루메 서쪽 마을을 육원이라 하며, 이는 포구를 낀 큰 들이 조성될 지역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전한다.

옥포리 가운데 위치한 마을을 도루메라고 부르고, 동쪽 마을을 다고개, 다고리라고 부른다. 다고개는 전에 갯벌이었으나 한 분기점을 이루는 지점으로 넓은 들과 개의 사이에 서게 될 마을이라 비롯된 이름이라 한다.

옥포리는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당제를 지내고 있다. 언제부터 지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제 말기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내게 된 것은 20년이 채 못 되나 그 연원은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제를 다시 지내게 된 동기는 인근에서 석탄 채굴을 위해 광산을 개발한 후 폭음에 놀란 당산 신령이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옥포리에 교통사고와 익사사고가 잦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이다. 따라서 당산신령을 모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다시 지내게 되었다 한다.

당산제일은 음력 정월 초이렛날로 정하고 있으나 꼭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마을에 초상, 산가, 개잡은 집 등이 있으면 부정하다 하여 음력 이월 초하룻날로 연기하여 지내기도 한다.

마을에는 다고정이라는 샘물이 있었다 하는데, 이 샘물에 전해지고 있는 전설이 있다.

지금부터 3백여 년 전 가난에 찌든 이 마을에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부황이 나 있었다. 다른 마을 보다 몇 배 더 일하는데도 이 마을은 늘 가난했다. 어느 해에도 벼를 심었는데 한 달이 못 되어 논에 물이 말라 벼를 수확할 때까지 논에 물을 대야만 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중 한 선비가 이 마을에 귀양을 오게 되었다. 마을은 한쪽으로 큰 강물이 흐르고 그 뒤에는 산이 뿔뿔한

지세라 그는 마을에 들어서면서 “꽉 막혔군.”하고 중얼거렸다. 정말 마을에 들어서니 가난에 찌든 마을이라 곡식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할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마을 어른을 찾아가 어려운 사정을 듣고 난 후 “쌈을 파야겠다.”며 사람들을 모이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남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쪽으로 내린 정기가 한 쪽을 막아 이 마을을 가난에 찌들게 한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그들을 데리고 한 장소를 가리키면서 이 곳을 파서 쌈을 만들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 하며 열심히 쌈을 파자 그토록 메말랐던 곳에서 물이 콧물 넘치는 것이었다. 쌈을 파고 난 후 마을에 물이 풍부해지자 자연히 농사일도 잘되고 가난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 어느 집이나 곡식을 쌓아놓고 살게 되고 사람들의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다. 그 후 수년이 지났다. 이제 잘사는 마을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던 어느 날, 강 건너인 지금의 전라북도 옥구군 나포면 서포리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 이 쌈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사유를 알고 본 즉 이곳에 쌈이 새로 생기면서 서포리 마을 아낙네들과 처녀들이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곳에 쌈을 파면서 그곳 사람들이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산 날이 없었다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도승에게 물어 본 즉, 건너편 마을 다고니에서 정기를 빼앗아가 그렇다고 하여 이처럼 쌈을 때려 부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자기네 마을에 불행한 일이 있어 쌈을 때려 부순다고 하는 데야 할 말이 없었다. 쌈이 없어지면서 이 마을에 다시 가난이 밀려왔다 그러나 다고정 사람들은 쌈을 다시 만들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가난을 견디어 냈다고 한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어려울 때 정기를 받았던 이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옥포리는 특히 이 부근에서 잡히는 우어라는 생선으로 회를 만들어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 명물로 알려져 타 지역에서도 우어회를 맛보기 위해 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나 이제는 하구둑을 막아 놓아 어획고가 많이 줄었다. 우어 말고도 하구둑 건설로 인해 뱀어 등 일부 어종이 멸종 되었다. 이 곳에 자리 잡은 원산은 한산 팔걸중의 하나인 원산수고(圓山戍鼓)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옥포리 전경

-보현리(保縣里)

행정리 안보와 문촌을 합하여 보현리라 한다. 안보리 뒷산에는 아담한 송마산이 감싸고 있으며, 논농사 위주인 마을이다.

보현리는 백제 때 안보현에 속했었다. 신라시대에는 작은 고을로 가림현의 영현인 안보현으로 고려까지 내려오다가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년) 한산군 안보향이었고, 그 후 남하면의 안뱅이, 안보리라 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문촌리, 와초리, 다고리 각 일부를 합쳐 옛날의 지명인 안보현의 이름을 따서 보현리라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보현리는 대주골, 안뱅으로 구성된 안보리와 서뜸, 동뜸으로 구성된 문촌으로 구분된다.

안뱅이 남쪽에 있는 마을을 큰 터라고 부르는데, 대덕골, 대덕이라고도 부르는 곳이다.

안뱅이 서남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을 문촌(文村)이라고 부른다. 안보현이었을 당시 이곳에 서당이 있어서 서생이 많았고,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선비촌 이었다 한다.

조선시대만 해도 부자가 많았고, 양반들이 많이 살아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꼭 글을 읽어서 출세하려는 것보다 글을 읽음으로서 자기 교양을 넓히는데 힘썼으며, 나들이 보다는 마을에서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배우면서 일생을 보냈다는 이상적인 성향을 가진 마을이었다 한다.

늦점 서쪽에 자리 잡은 마을을 안뱅이라고 부른다. 옛날 설림군과 마산현 사이에 작은 고을이 있어 안보현이라 불렀는데, 그 현의 고을이었던 곳이며, 그에 따라 마을 뒷산도 안뱅이라고 부른다.

문촌 동남쪽으로 참жат골 이라고 지칭하는 곳이 있고, 그 옆 서쪽으로 자리 잡은 골짜기를 오릿골 이라고 부른다. 이는 지형이 오리 형태이기도 하지만, 물오리가 잘 나타나는 골짜기라서 그렇게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 향토사학자는 보현리에 전해지고 있는 안보현의 명칭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자에 따르면 보현리의 안보현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에 안보현의 기록이 없으며, 이 지역에 읍기와 관련된 지명, 즉, 성터, 창고터, 옥터, 문루터, 향교터, 관아터 등의 지명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 마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재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촌리 전경

-와초리(瓦草里)

와초리는 금강 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에 문촌리가 있고 북쪽으로 기북리, 동쪽으로 완포리와 인접해 있다.

마을 뒷산에 기우단이 있는데, 기우단은 예로부터 용왕과 산신을 위하는 풍습에 따라 명산과 대천을 찾아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이는 조선시대에 와서도 국가적인 행사로 계속되어 한발이 심할 때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어 민심을 수습했다 한다.

와초리는 고려시대 임천에 속한 한산현 소속이었으며, 조선시대 1413년 한산군에 속했고, 조선말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기와를 굽던 곳이 있다 하여 지새울, 또는 와초동, 지호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문촌리 일부를 합하여 와초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와초동이라 하며, 와초동 둘레에 있는 이 세 봉우리를 삼봉산이라 부른다.

지새울 남쪽으로 나루터가 있었다 하는데, 이곳에서 인근 전북지역을 왕래 할 수 있는 나루터로, 이를 지새울 나루터라고 불렀다.

와초리에는 김영배 선생이 세운 한영학교가 있었는데, 현재 한영학교 자리에는 기와집이 들어서 있다.

한영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이며, 당시 독립운동가 김인전 선생이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다. 이 학교는 일제의 많은 시달림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불어넣어 마산 새장터 삼일독립만세의 주역인 송기면, 임학규, 이근호, 김인두 선생 등을 길러냈다.

김인전 선생은 와초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몸 받쳐 온 분이며,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으로 임시 정부의 의정활동을 이끌었다. 일생을 독립과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던 그는 1923년 상해에서 순국하여 상해 외국인 묘지에 안장됐었는데, 1980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한데 이어 지난 1993년 8월 10일 조국의 국립묘지에 옮겨져 안장되었다. 서천군에서도 2004년 하구둑에 기념비를 세우고, 김인전 공원을 조성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와초리는 와초동 와요지가 있었는데, 와요지는 기와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국에 여러 곳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백제시대 이전으로 추정되는 이 와요지는 그 시대부터 가옥에 기와를 올렸다는

증거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와요지가 있었던 장소는 대개의 경우 권력층의 가옥이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당시 교통이 불편하여 먼 거리를 운반하는 것보다 그 지방에서 소모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이다. 서천군에는 5곳의 와요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화양면에는 와초리와 남성리 두 곳의 와요지가 있어 주변에 권력층이나 부자가 많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와초리 전경

-완포리(完浦里)

지금은 넓은 농토로 변하여 맛좋은 화양쌀을 생산하고 있는 완포리는 백제시대와 신라시대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 소속이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임천의 한산현 소속이었다.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에는 한산군에 속했고, 조선 말엽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완길리, 기포리의 이름을 따서 완포리라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완포리는 거름개라고도 하는데, 옛날부터 간조의 차가 심해서 바닷물의 변동이 많은 금강가에 위치한 마을로 개가 많은 풀 땅 근처에 마을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뱃사람들의 곳이 표적이 되는 마을이라 기포(岐浦), 또는 기포리 라고 불렀다 한다. 이곳에는 거름개나루라 지칭하는 나루가 있어 전라도 등 외지 손님을 실어 날랐다.

거름개 북쪽의 마을을 완길, 괴률이라고 부르며, 서쪽에 있는 지역을 보강, 보반굴이라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괴률, 보방굴, 동아시, 하느물, 도란물 등으로 부르는 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을 끼고 마을 한 칸에 안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오르면 전라도 마을이 한 눈에 보인다.

70년대에 故김지열 씨가 무성한 갈밭을 개간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싸게 분양하여 지금은 경지면적이 25만평 정도에 이르며, 마을 곁에 공동묘지가 있어 주변 마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역사적 인물인 권변(權卮)의 출생지이기도 한데, 수초당 권변은 벼슬길에 오르느니 차라리 벼슬을 버림으로써 백성의 길을 따라가야겠다는 신념에 어떤 이유에 대한 변명도 없이 스스로 병풍에 가려 그 술한 부름도 사양하고 고고하게 살다간 선비이다.

권변은 1651년(효종 2) 완포리에서 양촌 권근의 후손 지족당 권양의 맏아들로 태어나 주위에서 신망을 받았다. 1663년(현종 4) 13세에 한산군의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였고, 당시 한산군수의 사위가

되었다. 1674년 이후에 서울에 머물며 정치권력을 둘러싼 당쟁으로 인해 우암 송시열 등이 유배당하는 것을 보고 폐거할 것을 결심했으나 선고의 명으로 1681년(숙종 7) 사마양시(전사와 생원 시험)에 응시 장원으로 통과했다. 1689년(숙종 15) 4월에는 증광전시(나라에 경사가 있어 왕이 친히 임한 가운데 시행하는 병과)에 급제했다. 이때 공은 나라에서 증광사를 베푸는 뜻을 모르다가 장소의를 희빈으로 봉하고 인현왕후가 서인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은 강직하고 불의를 모르는 성격으로 과거 급제자에게 교지를 교부하던 날 비로소 이 사실을 알고 당일로 고향으로 돌아와 두문불출 하였다. 당시 급제자는 18명이었는데 17명은 인현왕후가 복위 된 후 삭과(削科) 되었다.

1694년(숙종 20) 갑술년에 인현왕후가 복위되면서 서강원설서에 임명되었으나 상소문을 올려 벼슬을 내놓았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은 변함이 없었다. 그 후 수십 차례 벼슬을 임명받았으나 끝내 거절하자 숙종이 친히 국문하기도 했다. 공은 전원에서 쓸쓸하게 살아온 바를 자술한 한거언지서(閒居言志序)를 쓰기도 했다.



완포리 전경

1725년(영조 원년) 풍환에 들어 다음해 숨을 거뒀는데, 공의 부음이 전해지자 조객들이 슬피하며 그 이어지는 길이가 10리에 달했다 한다. 그는 왕명에 의해 변품과 증직이 내려져 이조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사 양관 대제학 지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좌빈객으로 추증되었다. 당시 왕으로부터 시호가 내려졌는데, 글을 좋아하고 학문에 힘썼다 하여 문(文)이라 하고, 청렴결백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지켰다 하여 정(貞)이라는 뜻을 담아 문정(文貞)이라 정했다.

공은 화양면 완포리 향현사에 봉향되었는데, 사원이 철폐됨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1989년 아우제월제 권성을 봉향하던 기산면 화산리 화산사에 추향케 되었으며, 그 후 화산사는 화산서원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화촌리(花村里)

화촌리는 행정리 화촌과 나울로 나뉘어져 있으며, 독립운동가 송기면 선생이 태어난 마을이다.

이 마을은 고려시대 임천에 속한 한산현 지역이었으며,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에 한산현에 소속되었고 조선 말 한산군 동하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곶으로 되어 있어 고지말 또는 화촌이라 했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나울리(羅栗里)를 합하여 화촌이라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된 곳이다.

나울은 동아시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형이 밤송이가 벌어진 형태를 띠고 있다 하며, 신라시

대 이 마을에 낙향한 선비가 밤나무를 심어 그 후 밤나무가 무성했던 마을이라 나을이라 했다고 전한다. 또한 밤 가지처럼 지조 있는 사람이 정착한 마을이라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도 있다.

화촌리에 고지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형이 꽃으로 되어 있으며,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연화부수형(蓮花淨水形)의 명당이 있다는 마을이다. 따라서 마을이 꽃으로 덮여 지형이나 산형이 연꽃에 묻혔다는 데서 고지말 또는 화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나을 서쪽에 있는 마을을 동아시라고 부르는데, 이는 백제시대 주류성에서 흘러온 백제 유민들이 성을 아쉽게 버리고 산형의 동쪽에 정착하여 이룩한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동아시 남쪽의 들을 만갯들이라고 한다. 옛날 조수가 밀려오는 갯가가 들로 변했다 해서 만갯들이라 지칭했으며, 동아시 옆에 새로 생긴 지역을 새뜸이라고 부른다.

독립운동가 송기면 선생은 1896년 1월 6일 화촌에서 태어나 기독교인으로 생활해오며, 평소 일본의 침략에 불만을 품고 대한 독립을 염원하던 중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자 거사를 계획했다. 따라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에서 태극기 2백여 개를 만든 다음 이튿날 교인 유성열, 이근호, 임학규를 방문하여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4월 29일 마산 신장리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거사일 동지들과 함께 미리 제작한 태극기를 갖고 장터에 나가 모여든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할 것을 역설했다. 마침내 2천여 명의 시위 군중이 모이자 송기면은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장터를 행진하다가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그 해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98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화촌리 전경

-죽산리(竹山里)

죽산리는 고려시대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던 마을이다. 1413년(조선 태종 13) 행정구역 개편 당시 한산군에 속했었고, 조선 말 한산군 동하면의 지역으로 대매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대매, 또는 죽산이라 했는데, 1914년 죽산리로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마을 뒤에는 높이 120m 되는 대매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조릿대가 많이 있었다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마을도 산 이름 따라 대매라고 부른다. 죽진(竹津) 이라고도 하는데, 죽진은 백제시대 금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포구였다 한다. 이 포구는 신라시대와 고려, 조선 시대에 걸쳐 큰 역할을 하던 포구이며, 고려 말 왜인들이 큰 선단을 이끌고 쳐들어 왔을 당시 우리 군사에게 크게 패한 바닷가에 자리 잡은 포구였다. 지금도 옛날의 선창 자리가 남아 있으며, 부근에 대나무가 많다.

대매 동쪽 지역을 미명골이라 부르는데, 조선시대 한산이 모시와 목화솥으로 유명할 당시 목화를 많이 심어 생산하던 마을이라 면동이라고 하다가 미명골이라 했다고 한다. 마을 서쪽 미명골 쪽으로 샘이 있는데, 이 샘을 찬하샘이라고 하며, 샘이 깊어 명주꾸리 세 개의 실이 들어가는 깊이라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미명골 북쪽의 산을 두름배라 한다. 이는 산 중앙에 두루미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나름막골 나루 추정리

죽산리에는 백제시대부터 생긴 나름막골이라는 나루가 있으며, 이는 전라도 나포와 왕래하던 나루라 한다. 미명골 서북쪽에 있는 알매산은 모양이 알처럼 생겼다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었으며, 갈막재, 매봉재 등으로 불리는 산과 등성이가 있고, 서쪽에 있는 산은 모양이 둥글게 생겼다 해서 동구재라고 한다.

미명골 남쪽에 위치한 마을을 수막골이라 하며, 심마동(深馬洞)이라고도 하는데, 백제가 망하고 주류성에서 북신좌평(福信佐平)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 말을 감추어 놓고 기병을 대기시켰던 마을이라 한다. 그 후 주류성이 함락되자 나당군(羅唐軍)에게 쫓긴 백제 군사들이 말을 풀어 도망치게 했는데, 군사는 없어도 밤마다 들에 말이 나타나서 구슬프게 울곤 하였다는 자리에 마을이 생겼다 하며, 밤에 말이 주인을 찾으며 울었다는 전설이 있어 심마동이라 부르다가 그 후 수막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망개라 부르는 지역은 백제가 한창 번창했을 때 이 마을에 집이 만호(萬戶)나 백백이 들어섰다 해서 만개라고 하던 것이 변하여 망개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서북쪽 마을을 세거리라고 하는데 마을에 세 갈래의 길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월산리(月山里)

이 마을은 백제시대 마산현 지역이었다. 신라시대는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 소속이었고, 고려

때 임천의 한산현 소속이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 한산군에 속했고, 조선 말 한산군 동하면 소속이었으며, 달고개 아래라 해서 달고개 또는 월령(月嶺)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월령리, 신천리, 광생리 일부를 합쳐 월산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옛날 마을에 방죽이 있을 당시 그 방죽을 중심으로 방죽건너, 방죽 안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소나무 밭 너머에 자리 잡은 솔너머라 부르는 지역과 월령 남쪽으로 새로 생긴 마을이 있는데 이 곳을 신촌이라 하며, 솔너머 북쪽에 있는 마을을 월령 또는 달고개라 한다.

월령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양지편이라 하고, 월산리 중앙에 자리 잡은 마을은 응지편이라 한다.

방죽건너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 구동리로 넘어가는 길을 장승백이라 하는데, 이곳에 옛날 장승이 서 있었던 데서 비롯된다.

이 마을에는 8·15 해방 전에 우물이 한 곳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연유는 우물을 여러 곳 파게 되면 달이 분산된다 해서 마을 어른들이 다른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월산리에는 1915년경부터 20년 동안 2년제 양학당을 만들어 양재관, 김양배, 권병천, 서준식, 양지환 씨 등이 한문과 한글, 수학 등을 무료로 가르쳐 주민들이 일찍부터 신학문을 깨우쳤다 하며, 이는 1935년경 주변에 학교가 생기자 폐지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현재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달고개모시마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이 마을 소득에 보탬을 주고 있다.

이 마을에는 ‘비명에 산 톱골의 장사’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소개한다.

옛날 고려시대 금강이 흐르는 월산리에 한 장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기운이 장사 일 뿐만 아니라 축지법을 썼는데, 그의 손에 잡히면 안 되는 일이 없었다 한다. 그가 장사라는 소문이 삼시간에 고을 원님에게 알려졌고, 원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사는 마을에 왔다. 마을 앞에서 장사는 어느 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스님이 가기를 기다려 장사를 만난 원님은 장사와 내기를 걸었다. 내기 인즉, 원님이 목수 열 사람을 시켜 집을 짓는데 이 집이 완성되기 전에 장사가 돌아오면 그 집을 장사에게 줄 것이지만,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신상에 해로울 것이라는 조건이었다. 장사는 선뜻 대답하고 원님의 편지를 받아 한양 사직골 김대감댁에 갖다 주고 답장을 받아오기로 했다. 똑같은 시간에 목수들과 일을 시작한 그는 목수들이 집을 짓기 위해 마당에 목재를 내려놓을 시간 벌써 한양에 도착했다. 김대감에게 편지를 전하자 김대감은 장사를 보며 ‘이 놈은 장차 크게 반역할 놈이다.’라고 생각하고는 답장에 ‘즉시 죽여버려라’라는 글을 써서 그에게 주었다. 그는 편지를 받아 들고 김대감 집을 나오는데 지난번 마을에서 만났던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은 장사를 보고, “여보시오. 집에 가거든 궤짝과 톱을 주의하시오. 밀창을 뚫으면 허공일거요”라고 말한 후 사라졌다. 장사가 스님과 헤어져 축지법을 써서 단숨에 마을에 돌아오니 목수들은 그제야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원님에게 가서 그 편지를 전했다. 편지를 읽은 원님은 “여봐라, 이놈을 당장에 포박하라”하고 명령을 내렸다. 포박을 당한 장사를 보고 원님은 “너는 장차 크게 역모를 꾀할 놈이니 죽어 마땅하다”고 하며, 궤짝에 들어가게 하고 궤짝 위에 못질을 하더니 목수를 시켜 큰 톱을 가져오게 한 후 “저 궤짝을 썰어 저놈을 두 토막을 내어 죽이렸다”하고 명령했다. 궤짝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장사는 그제야 한양 김대감집 앞에서 만남 스님이 하던 말을 생각하고 몸에 힘을 주니 밧줄이 끊어졌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궤짝 아래를 밀치니 밀창이 뚫어지면서 땅속으로 떨어졌다. 땅속에 떨어져 위를 보니 궤짝을 썬 소리가 들렸다. 그는 땅속으로 한참 가다 위를 올려다보니 바로 그 곳에 원님의 수레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수레 속으로 들어가 앉았다. 원님은 톱으로 궤짝을 썰었으나 장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를 잡으라고 소리 지르며 수레에 다가가 앉으려고 하자 장사는 발로 그를 힘껏 찼다. 하늘로 봉 뗏다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원님은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렀다. 장사는 원님을 보고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이려고 하다니 내가 무슨 죄가 있소. 힘이 장사 인 것도 죄요?”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장사는 그 후 금강산에 들어가 스님과 벗하며 살았다 한다.

따라서 장사를 톱으로 죽이려고 하던 장소를 톱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월산리 전경

-남성리(南星里)

금성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남성리는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남생이처럼 생겼다 하여 남생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남성이라 했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후 광생리, 등하리 각 일부를 합하여 남성리라 해서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남성리는 남성리와 광생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리는 구룡목 남쪽 마을로 마을 지형이 자라와 비슷한 남생이처럼 생겼다 해서 남성리가 되었다 한다.

광생리는 남성리 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며, 마을 뒤에 자리 잡은 일광산(日光山)과 제월봉에서 비롯되어 일월(日月) 즉, 해와 달의 빛이 마을을 번성하게 한다 해서 광생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광생이 서쪽으로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오얏골이라 부르며, 와동, 왓골, 오양골이라고도 하는 마을로 옛날에는 기와를 굽던 마을이라 와요지가 있었다.

광생이 서쪽에 있는 논을 연수논이라 하는데, 물이 많아서 연중 기름진 논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동쪽에 자리 잡은 마을을 동아서, 서쪽 지역에 있는 마을을 서아서라고 부르고, 일광산과 제월봉 근처에 광생을 중심으로 양쪽에 자리 잡고 있다.

남성리 남쪽으로 지형이 뱀처럼 생겼다 해서 구룡목이라 하는 지역이 있으며, 광생이 남쪽에 있

는 논은 거름이 항상 놓인 것처럼 기름지다 하여 거름안이라고 한다.

옛날부터 집성부락이 형성되었던 마을에 금성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학생 수가 적어 지금은 화양 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으며, 남성보건진료소가 있고, 화양면에서 유일하게 의용소방대 지대가 조직 되어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출신으로 6·25전에 농림부장관을 지낸 윤석구 씨(6·25때 학살 됨)가 있다.



남성리 전경

-대하리(大下里)

대하리는 고려시대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던 곳이며, 1413년 조선시대(태종 13)에는 한산군 소속 이었고 조선 말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대등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대하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동하면 동하리 일부를 합하여 대하리라 해서 화양면에 편입 되었다.

이 마을은 용댕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편이 동하두, 서편이 새대로 구성되어 있다. 용댕이는 마을 뒷산의 형태가 동하두 쪽으로 머리를 둔 용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 하는데, 서천군지에 보면 고려시대 용왕제를 지냈던 제당이 있어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동하두는 옛날에는 도화동이라고 했다 하는데, 그 이유는 마을에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어 봄이면 복사꽃이 활짝 핀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대하리는 앞 들이 넓어 옛날부터 부촌으로 알려진 마을이며, 인재도 많이 배출한 곳이다. 특히 공무원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전 현직 등 이 마을 출신 공무원이 150여명에 이르러 인근에서 공무원 마을이라고 칭한다.

이 마을은 30여 년 전 타계한 나무다리 의원이라 일컫던 정홍섭 씨가 태어나 살던 마을로, 정의원은 병·의원이 없는 무의촌 지역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거의 무료봉사 하다시피 한 지역의 명 의였다. 이 분은 특히 중기 치료를 잘하여 널리 소문이 나서 교통이 불편한 당시에도 보령 등 타 지역에서까지 치료하러 왔었다고 한다. 그 분의 뜻을 기려 마을에서는 지난 1976년 마을에 공적비를 세워주었다.

-대등리(大等里)

이 마을은 조선 말 한산군 동하면의 지역으로 등상리(等上里)와 남하면 대상리(大上里)를 합하여 대사동의 이름을 따서 대등리라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서쪽에 자리 잡은 큰 마을은 한저울이라 하는데, 이는 옛날에 마을 뒷산 중턱에 큰 절이 있었던 것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 절 이름이 큰절, 한절, 또는 대사였던 데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뒷산 절터로 추정되는 지역 주변의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다. 이 절은 옛날 빈대가 많아 불을 놓아 태워서 없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저울에서 동쪽으로 등칠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의 지명은 뒷산 등성이가 일곱 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등칠이 변하여 등출이라고도 하는데 등을 들고 나오는 듯한 지형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진다.

등출 북쪽 옆에 있는 골짜기를 홍지곡이라 하며, 이는 빨간 흙이 있는 골짜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등출 북쪽에 있는 지역을 뱃챙이라 하는데, 이곳의 지형이 배의 아래처럼 생겼으며, 땅을 팔수록 물이 고인다고 한다. 물이 고이는 그 땅 아래 자갈이 깔린 냇물이 있어서 냇물 위로 흙이 덮여 있고, 그 위에 풀이 숲을 이루었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물이 고이는 곳이 황토흙이면 명당이라고 한다. 지명이 처음에는 뱃창이라고 하다가 변하여 뱃챙이가 되었다 한다.

또한 등출 북쪽으로 비석날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산등성이에 비석이 서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대등리에는 옛날 감독골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다. 이곳에 샘이 있었는데 물맛이 유난히 좋아서 한산 현감이 이 물을 길어다 마셨다 하며, 한산 물장사들이 산을 넘어와 길어다 팔기도 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대등리 위쪽 마을을 위뜸, 아래쪽 마을을 아래뜸이라 하고, 대숲이 많아 대숲안이라 부르는 지역과 대숲안에서 서쪽으로 죽산이라 지칭하는 곳이 있으며, 그 곳에는 아주 오래된 감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다.

한저울에서 등칠로 넘어가는 지역에 쇠쟁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에 소정(昭亭)이라는 정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저울 위뜸 동쪽 끝에 지치매골이 있고 그 앞에 앞동산, 등출로 넘어가는 등성을 안산이라 한다.

마을 앞에는 마을나무로 지정된 보호수가 두 그루 있는데, 마을 입구 쪽 대하리로 가는 길목에는 2백여 년 된 팽나무가 있고, 마을 가까이에 170여년 되는 느티나무가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호수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위뜸에서 대숲안으로 가는 길목 마을 중앙쯤에 큰 팽나무가 한 그루 있어 마을이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뒷산에는 석질이 좋은 돌이 생산되어 한동안 이 마을에 석수장이가 살면서 돌절구와 돌매 등을 만들어 팔았다. 지금도 이 마을에서 생산된 돌절구는 전국에서 그 석질의 우수함과 형태의 수려함으로 수집가 들에게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에 양학당이 있었으며, 이는 60년대 초까지 존재했었다. 일제시대 마을 출신 故최인환씨가 서당을 운영하며, 독립운동가 김인전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과 신학문 보급에 힘썼다.

마을 앞에는 석북공 신평수 묘소가 있어 최근에 군의 지원으로 재정비했다.



대동리 전경

- 활동리(活洞里)



활동리 전경

대동리에서 서쪽으로 난 성황당 고개를 넘으면 활동리에 이른다. 어성산과 칠종산이 감싸 안고 있는 마을로 은종이 땅에 묻혔다 해서 은골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아 알려진 마을이며, 고려시대 한산 현에 속했었다. 1413년 조선시대(태종 13)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어성산 아래 수문골, 은골, 또는 송문동, 활동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활동리와 대하리 각 일부를 합쳐 활동리라 해서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학자들이 많이 나온 마을이라서 글을 숭상한다는 뜻의 송문동이라고도 했다 하는데, 석복공 신광수 선생이 태어난 마을이며, 한국 시사(詩史)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초대 화양면장을 지낸바 있는 시인 신석초(본명 응식)가 태어나 한동안 살았지만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어 학계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러 찾고 있다. 한산모시관 곁에 그의 시비를 세우면서 그가 살던 집터에도 표지석을 세워놓았다.

마을 가운데 있는 샘을 복천이라고 불렀는데, 조선 광해군 시절 서도에 능한 강학년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벼슬을 버리고 정치의 문란을 통탄하여 숨어 살다가 인조반정 후 벼슬길에 올랐다. 그는 정사가 백성들과 약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간했다가 귀양살이를 했다 하며, 그가 마셨다는 샘물은 지조를 지키는 백성이 마셨다 해서 절개가 굳음을 나타내는 물이라 전한다.

서쪽에 있는 산은 박종피 또는 칠종산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박씨들의 종묘로 지정한 산이었으나 현재 많은 묘는 없고 명당의 맥이 서려있다는 산이다.

이밖에도 이 지역은 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하며, 은이 묻혀있다는 설이 전해지고, 한산 현이 들어서려 했으나 지역이 좁아 뜻을 이루지 못한 지역이라고 전해진다.

이 마을에는 은골의 두 형제라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나라에서 은이 필요하여 백성들에게서 은을 후한 금액을 주고 사들일 때였다. 우연히 자기 집 산모퉁이에 이상한 쇳덩이가 나와서 그걸 관가에 알아본 즉 그것이 은이라 하여 갑자기 부자가 되어가는 두 형제가 있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두 형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자랐는데, 이제부터 부자가 된다니 꿈만 같았다. 그런데, 형은 착실하고 욕심이 없었지만 동생은 욕심이 많았다. 그래서 형은 아직 장가를 못 갔지만, 동생은 장가를 먼저 가서 큰 잔치를 열었다. 거기다 집까지 사서 살림을 냈는데 살림을 하면서 더 욕심을 부렸다. 어느 날 두 형제는 은을 캐러 갔는데, 은을 캐는데도 언제나 힘든 일은 형이 맡아서 했다. 그날도 형이 갱구로 줄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은맥에 붙은 은을 캐서 위로 올렸다. 형은 갱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했으나 동생은 형이 캐는 은을 가끔씩 올리며,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형을 졸라서 소 두 마리 값을 타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한동안 은을 캐던 형이 갱 속에서 밧줄을 당기라고 종을 올렸다. 동생이 밧줄을 당기자 큰 은덩이가 올라왔다. 연거푸 종이 울리며 은덩이가 계속 올라와 큰 은덩이 세 개가 동생 앞에 놓였다. 은덩이를 앞에 놓은 동생은 이 은덩이를 형과 나누면 자기 몫이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동생은 그 은덩이를 가지고 슬금슬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모른 채 갱구에서 은을 파던 형은 또 은덩이가 나오자 밧줄에 묶어놓고 잡아당기라고 종을 올렸다. 그러나 아무리 종을 올려도 위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형은 동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줄 알고 쉬고 있다가 다시 종을 올렸으나 대답이 없자 밧줄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 했다. 그가 한참 밧줄을 타고 올라오는데 위에서 푹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밧줄이 끊겨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형은 체념하고 바닥에 누웠다. 그런데 동생은 그 은덩이를 지게에 지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은덩이에 깔려 죽고 말았다. 어느덧 어둠이 밀려오고 형은 위에 대고 “사람 살려” 하며 힘껏 소리 질렀다. 그러자 갱구에서 길게 늘어져 꿈틀대는 것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형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르는데 그 구렁이는 꼬리를 아래로 내리더니 그를 뚜루루 말아 갱 밖으로 내놓고는 어디론지 사라졌다. 그래서 착한 형은 부자로 잘살았으며, 이 마을은 은이 나왔다 해서 은골이라 부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 추동리(楸洞里)

추동리는 추북과 추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이 날아와 신선지 처럼 아름답던 마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백제 때 마산현에 속했다가 신라 때는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에 속했고, 고려시대에는 임천의 한산현 소속이었다. 1413년(태종 13) 조선시대에는 한산군의 지역이었고, 조선 말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큰 가래나무가 있다 해서 가래울 또는 추동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곡리(長谷里), 추상리(秋上里), 추하리(秋下里), 구룡리(九龍里), 표동리(瓢洞里), 원봉리(圓峯里) 일부를 합쳐 추동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에는 구룡막, 장곡, 가래울, 고린장굴, 능밑, 땃고개, 분딧굴, 조뻥굴, 팔계, 고추매 등의 재미 있는 지명이 많으며, 추북리와 추남리가 집이 띄엄띄엄 여러 곳에 나뉘어져 있는 마을이다. 마을 가운데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서로의 거리가 더욱 멀게 느껴진다.

지명을 따라 살펴보면 구룡막 이라는 곳은 가래울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마을 지형이 구렁이 목처럼 생겼다 해서 구룡목으로 부르다가 변하여 구룡막이 되었다 하며, 장곡은 분딧굴 옆에 있는 마을로 잣골이라고도 하는데, 길게 내려 뻗친 골짜기가 2km나 되며, 골짜기 아래에 마을이 있다 해서 장곡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한다.

가래울은 고려장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며, 이 부근에 가래나무가 많았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래나무가 조선 말 경까지 서 있었다 하는데 이로 인해 추동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전한다.

고려장골은 가래울 동쪽에 있는데, 고려시대 이곳에 고려장터가 있어 주변에서 나이 많은 노인을 고려장 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가래울 옆 능밑이라는 곳은 새성굴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능이 있었던 자리에 마을이 생겨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능밑 남쪽에 있는 땃고개라는 지역은 마을에 대나무가 많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분딧골은 이 마을에 옛날부터 분토(粉土)가 나온다 해서 연유되었으며, 조뻥골은 능밑 북쪽마을로 표동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마을 지형이 바가지처럼 생겼다 해서 조뻥골 또는 표동이 되었다 한다.

팔계는 능밑 서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옛날 고려시대부터 마을에 큰 나무가 여덟 그루 서 있었다 한다. 그 나무에는 학이 날아와서 신선지 같았다 하는데, 그로 인해 팔계라는 지명이 붙여졌고, 팔계 마을은 큰 팔계, 작은 팔계로 나누어진다.

-기복리(箕福里)

기복리는 행정리 기산과 한곡으로 나누어진다. 고려시대 임천에 속한 한산현이었고, 1413년(태종 13) 조선시대에는 한산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산리(箕山里) 한곡리(閑谷里)와 원봉리, 문촌리의 각 일부를 합쳐 기복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기산 중앙에 마을 보호수인 주엽나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사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을 치울재라고 한다. 치울재는 기복리 중심 마을인데, 마을을 두르고 있는 산이 치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치를 두른 마을이라는 뜻으로 치울재 또는 기산이라고 부른다.

치울재 북쪽 마을을 두루재라고 하는데, 마을 뒷산이 둥글게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원봉(圓峯)이라고도 한다. 치울재 남쪽에 위치한 지역은 네 갈래 길이 있다 해서 사거리라고 부른다.

한세울은 한곡이라고도 하는데 옛날부터 일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한가롭게 갖고 사는 선비들이 많이 살던 마을이라 한다. 한곡은 현재 모시 특산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천군수를 지낸 박중규 씨가 이 마을 출신이다.

-금당리(琴堂里)



금당리 전경

하리와 북리로 구성되어 있는 금당리는 뒤로 화양산을 등지고 앞으로 금강이 바라보이는 넓은 들을 끼고 있어 옛날부터 부자마을로 알려져 있으며, 독립운동가 조남명 선생의 출신마을이다.

고려시대부터 한산현 소속이었으며, 1413년(조선 태종 13)에 한산군이었고, 조선 말 한산군 남상면의 지역으로 검당이라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금당이라 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북리, 금하리의 각 일부를 합하여 금당리라 하고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금당리 북쪽에 있는 마을을 금북 또는 금당 북리라 하며, 남쪽에 있는 마을을 아래쪽에 있다 하여 금하, 또는 금당 하리라고 부른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백제시대 당나라 군사가 침범해 올 때 이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떠났다 하며, 금강 줄기를 타고 침공해 올 때 건지산성에 진을 치고 완강히 저항하는 백제군 때문에 배를 타고 침공해 갈 수 없어서 이곳에 진을 치고 건지산을 공략한 다음 쳐들어갔다고도 전하는데, 그때 당나라 군사들이 진을 쳤던 자리라 한다.

금당과 창외 사이에 있는 곳을 명고지라 하는데, 바람이 부는 날과 달밤이 깊었을 때 북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북이 크게 자주 울리면 나라에 큰 난리가 생기고, 달밤에 자주 북이 울리면 그 해에는 풍어가 든다고 전해지고 있다.

가나실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옛날부터 마을이 한일자로 길게 늘어서 있던 마을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금당리는 특히 70년대 벃짚으로 만든 가마니를 사용하던 시절, 농한기에 가마니 짜기가 성행했던 곳이다. 이로 인해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전 주민이 참여하여 한때는 전국에서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당리에는 서천군 관내에서 최초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 화양면에서 생산되는 쌀을 도정하여 외지로 판매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마을에는 검당이라는 신당이 있었다 하는데, 신당은 우리네 옛 선조들이 지역과 조건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위협하는 재해를 면하고 그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명(神明)에게 기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원하던 곳이다. 서천군에는 이러한 신당지가 13곳이 전해지고 있는데, 금당리에 있는 검당이 그중 하나이다.

금당리 남쪽에 있는 금하마을은 금하군사주둔지라 부른다. 금강변의 전략적인 요지로 지목되고 있는 금당리 금하마을은 백제 말 나당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당나라 군사가 일시 주둔했던 곳이며, 고려 말 왜구가 침범해 왔을 때는 최무선 장군과 나세 장군이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수군을 주둔 시키고 진포해전에 대비하여 왜군을 무찌른 군사주둔지였다 한다.



동서천미곡종합처리장

-창외리(昌外里)

창외리는 한산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남촌이라고 불렀던 마을이다.

백제시대에는 마산현 소속이었고, 신라시대에는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던 마을이다. 1413년(조선 태종 13) 한산군이었던 곳이며, 조선 말 한산군 남하면의 지역으로 남창(南倉)의 밖에 위치해 있다 해서 창외 밖 또는 창외 외라고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창내 지역을 합쳐 창외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창외 내에 있는 사창(社倉) 터를 남창터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남창에 있어서 이 지방의 곡세미(穀稅米)를 보관했다고 한다.

또한 장이 섰었다는 장터거리가 있고, 마을 동편에 희천 또는 호샘이라 부르는 샘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 되어 물만 솟아나고 있다. 그 물맛이 매우 좋으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워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왔으나 거리 관계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창외리 전경

- 고마리(叩馬里)

고마리는 넓은 화양 들녘 가운데 마치 바다위에 떠 있는 섬처럼 아담한 동산과 그 주변에 옹기종기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백제 때 마산현 소속이었으며, 신라시대는 가림군의 영현인 마산현이었고, 고려 시대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 한산군이었다가 조선 말 한산군 남상면의 지역으로 고마들 가운데에 위치했다 해서 고마리라 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농소리(農所里) 일부를 합쳐 고마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마을 지형이 사람이 말을 타고 두드리며 달리는 형상이라 해서 고마라고 불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마을 동산에 이름모를 묘가 둘이 있는데 그중 제일 큰 묘가 백제 때 성충 좌평이 귀양 와서 살다가 죽어서 묻힌 묘라는 설화가 전해진다.

현재 마을에 있는 양어장 자리에 방죽이 있었다 한다. 그 곳에는 삼충신이 낚시를 즐겼다고 전해지며 그로 인해 고마리를 삼인야, 삼인들, 삼인야들 등으로 불렀다 한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역적으로 몰렸을 당시 허균의 종형인 허책의 후손이 이곳으로 피신 와서 뿌리 내리고 살게 된 것이 현재의 양천 허씨라 한다.

고마리에는 향약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향약(鄕約)은 지방자치단체의 덕화 및 상호 협조 등을 위하여 만든 마을의 규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로 널리 시행되었는데, 그 모체를 이룬 것은 중국의 여씨 향약이다. 여씨 4형제가 일가친척은 물론 마을 전체를 교화 선도하기 위해 처음 만든 것이다. 그 뒤 여씨 향약은 주자에 의해 완비되어 우리나라에 소개 된 것은 주자학의 전래시인 고려 말의 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졌고, 실제로 향약이 시행된 것은 1398년(조선 태조 7)이다.

고마리는 일찍이 학문을 숭상하고 향리의 교화사업에 힘쓴 마을이다. 1849년(헌종 15) 당시 이 마을은 오랫동안 향약이 없어 향리 사람들 가운데 사람 된 도리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규약을 만들어 사람 된 도리를 지키고자 했고, 또한 규약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을 때

는 마을 자체로 규약의 형벌에 의해 벌을 가하며, 형벌을 가할 때 완강히 거부하면 관청에 고발 처리하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마을 향약 내용을 보면, 규약의 취지를 알리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약속 덕목을 4가지 두었고, 덕목 중 과실상규난에는 벌칙 규정을 두고 상벌, 차상벌, 중벌, 차중벌, 하벌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상벌은 태 40대, 차벌은 태 30대, 중벌은 태 20대, 차중벌은 태 15대, 하벌은 태 10대로 규정하고 있다.

본 향약의 서문에는 ‘사람이 사람 된 도리를 가르치지 않고 알지 못하고 배움이 없으면 어찌 행하랴. 후세에 오늘을 보는 시각이 현대 사람이 옛날을 보는 것과 다르없다’라고 했으며, ‘한동네에 여러 성씨가 살고 있는 바, 그중에는 혹은 어질고 혹은 우매한 사람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요. … 중략… 우매한자는 의로운 방법으로 가르치고, 약한 자는 밝은 법도로 타이르고 해서 점점 교화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으며 또한 성스럽지 않으랴’ 했으며, 누구를 막론하고 오래도록 지켜 행동하고자 했다.

과실상규를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화하며, 형제, 삼촌, 당숙 간에 구타하는 자는 모두 큰 죄로써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며, 불효를 최고의 벌로 규정했다.

본 규약을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다툰 자는 잘잘못을 막론하고 그 며느리와 남편을 다스렸다. 시어머니가 죄 없이 그 며느리를 내쫓으면 시아버지를 차중벌인 태 15대 등으로 다스렸다.

이상의 죄상을 동네에서 처결하되 이를 완강히 거부할 시는 관청에 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약은 동네 이장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는 본 규약을 검토 후 격려문을 내렸는데 “향약을 행하지 않음이 오래되었으며, 세속의 습관이 날로 절박함에 빠지고, 씨족간의 의리와 이웃 간의 사귀이 없어져 들을 수가 없더니 이제 그대 동네의 규칙을 보고 아름다움에 탄복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부자 형제는 지금부터 서로 힘쓰고 친구 간, 이웃 간에는 서로 깨우치면 풍속이 어찌 맑고 후덕스럽지 않으며, 다스리고 가르침이 어찌 바다같이 넘치지 않으랴. 힘쓰고 또 힘써야 겠다”는 내용이었다 한다.



고마리 전경

-장상리(長上里)

백제시대 마산현에 속했던 장상리는 신라시대에는 가림군의 마산현 소속이었고, 고려시대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는 한산군이었으며, 조선 말 한산군 남상면의 지역으로 장상리, 금상리, 선소리의 각 일부와 서천군 동부면의 모군리 각 일부를 합쳐 옥포장 위쪽에 있다

해서 장위, 장상이라고 했는데, 장상리라 해서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장상리는 장상과 진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장상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을 원촌이라 하며, 이는 조선시대 이 고을의 원이 살던 집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공덕산 나루는 장상리에서 마서면 신포리 공덕산으로 건너가는 나루터라 붙여진 이름이며, 당시 이곳 나루에서 건너편으로 마을 사람들을 건너 주는 나룻배가 있었는데, 이 나룻배를 이용하여 건너 마을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으며, 나루를 이용하고 가을 추수 후 벼 한 말, 여름 보리 추수 후 보리 한 말 썩을 도선료로 냈다고 한다. 당시에는 수로를 이용하여 생활권이 주로 군산이었다.

원촌 북쪽에 있는 마을을 참나무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진목이라 하며, 옛날 이 지역에 참나무로 지은 정자가 있었다 한다. 참나무쟁이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마을을 말목장이라 하며, 원뿔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마을이라 말목장이라 했다 전해지며, 옛날부터 7호정도가 살고 있다.

일제 말기쯤에는 망월리에 공출 창고가 있어 길산천을 이용하여 공출미를 싣고 강을 따라 운반했다 한다. 강물이 잦아질 때는 신포리 공덕으로 넘어가는 돌다리가 있었는데, 마을 아낙네들이 이 돌다리를 밟고 가다 물동이를 이고 미끄러지는 등 식수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마서 신포와 금당리, 마서 산내리 등에서 상수도를 끌어와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길이 포장되지 않았던 시절 살기가 매우 어려운 마을이었으며, 비가 오면 땅이 질어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산다고 할 정도였다 한다.

마을이 배 형상이라 해서 옛날에는 기와집이나 양철집을 못 짓고 초가 목조건물 밖에 없었다고 전한다.

옛날에 바다였다는 이 마을은 지금도 조금만 파면 썩지 않은 갈뿌리가 나온다고 하며, 각처에서 모여든 각성이 살아도 인심이 좋고 단결이 잘되는 마을이다.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어려웠던 일은 지난 1987년 수해 시 지형이 얇은 관계로 마을이 물에 잠겨 3일 동안 온 마을 주민이 마서 신포교회로 피난했던 일이다.

-망월리(望月里)

망월리는 금강변에 위치하며, 그동안 교통의 어려움이 많던 마을이었으나 금강하구둑 개통과 함께 강변도로가 뚫리면서 교통 불편으로부터 벗어났다.

백제시대 마산현에 속했으며, 고려시대 임천에 속한 한산현 소속이었던 마을이다. 그 후 1413년(조선 태종 13)에 한산군이었고, 조선 말 남하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아리, 선소리, 농소리와 서천군 동부면의 모군리 각 일부를 합하여 이곳에 자리 잡은 망월산의 이름을 따서 망월리라 하여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망월리는 선소와 신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소는 망월산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옛날에 배를 만 들던 곳이다. 또한 배가 정박하기도 하고 출항하기도 하여 선소리고 했다고 전해진다. 망월산 서북쪽에 위치한 신아포라고 하는 지역은 망월리에서 으뜸이 되는 곳으로, 금강가에 자리 잡아 포구가 다시 생겼다 해서 신아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망월산 위에 산제당이 있는데, 옛날부터 마을의 안정과 풍년, 풍어는 물론 마을 사람들을 질병에

서 구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던 제당이라 한다.

망월산 아래에는 나루터가 있는데, 망월나루라고 부르며, 옛날부터 밀물과 썰물, 해와 달을 보고 시간의 흐름을 알고 지내던 나루이다.

길산천 하류에 위치해 있어 옛날에는 이곳을 통해 굴, 새우젓 등을 실은 배가 길산천 상류까지 드나들었다 한다. 지금은 막아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하며 장항에 있는 업체인 한솔제지에 공급함으로써 마을 발전기금을 받아 도움이 되고 있다.

마을 뒤에 큰 샘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으나 그 물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는 것이 특색으로, 어머니 결혼식 때 길어다 놓았던 물을 아들 결혼식 때 떡국잔치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길산천 하류에는 잉어와 붕어 등이 많이 잡혀 하구둑 개통 이후 외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망월리 당산에서는 정월 초하룻날 저녁 7시경에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은 금강가에 있는데, 표고 20m 정도의 아주 작은 산이지만 강변에 있어 도드라져 보인다. 현재 전북 옥구와 서천을 잇는 전신주 첩탑이 서 있는데, 첩탑 바로 밑에 당산이 있으며, 작은 당집이 있다.

망월리는 신아와 선소가 각각 따로 당산제를 지냈는데, 신아의 당산제는 망월산에서 지내지만, 선소의 당산제는 마을 뒤편에 있는 언덕에 세 개의 무덤 같은 것이 있어 이곳을 신성시 해오면서 당산제를 지내왔으나 15년 전 쯤 젊은이들이 미신이라며 반대해서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마서면 도삼리와 함께 금강생태공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 봉명리(鳳鳴里)

봉명리는 백제시대 마산현이었고, 신라시대 가림군의 마산현 소속이었으며, 고려시대 임천의 한산현에 속했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 한산군 소속이었고, 조선 말 한산군 남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망천리(網川里), 신기리(新基里)와 농소리(農所里), 신아리(新芽里), 한암리(鵝岩里), 육원리(陸元里)의 각 일부를 합쳐 봉황산(鳳凰山)과 계명산(鷄鳴山)의 이름을 따서 봉명리라 하여 서천군 화양면에 편입되었다.

계명산에 황새를 닮은 바위가 있어 황새바위라고 하는데, 바위 모양이 논에서 황새가 우렁이를 먹고 있는 형상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신기리는 동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신기리 또는 새터라 하며, 망천은 절굴 앞에 있는 마을이라 한다.

백제시대 마을 앞 냇물에서 물이 흘러 금강으로 갔다 하는데 이 내를 망천이라 불렀다 하며, 냇가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봉명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새터 동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공수동(公水洞) 또는 작은 망천이라고 하며, 망천 냇가 부근에 있는 작은 지역이다.

계명산에서 살포재를 넘어 옥포, 추동리로 가는 고개를 갯고개라고 한다. 조선 선조 시대 큰 가뭄이 있을 당시 금강 옥포 강변에 해초가 많아서 그 해초로 연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초막을 쳤

던 고개라 전한다.

봉명리에는 황서배라는 지역이 있는데, 계명산의 황새바위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망천 뒤에 있는 산은 살포재, 사포티, 효산, 회산 등 이름이 많은 산이다. 노을이 뜰 때와 노을이 질 때 절경을 이루는 산이라 조선시대 한산고을에 머무는 선비들이 바다와 육지를 서로 표현할 때 흔히 나오는 절경의 산이다.

망천 남쪽에 외따로 있는 산을 독피라 하며, 탄피, 독산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돈과 재산 모으기에만 급급하던 촌부가 마을에서 인심은 잃었으나 돈이 많아서 돈에 허우적대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가 죽은 후 시체를 매장하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승낙해 주지 않고 일을 돌봐주지 않아서 이 산에 묻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계명산에는 쪼개진 것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벼락바위라고 하며, 벼락 맞아서 쪼개졌다고 전해진다.

신기마을에는 효자 이임 경주 이씨 정려비각이 있는데, 효자 이임은 부모가 함께 병환이 나서 30년을 간호했는데, 조금도 게으름이 없이 약과 음식으로 정성을 다 하고 돌아가셔서도 시묘살이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 자부인 처 이씨는 조용하고 어질고 정숙하여 여자의 덕을 갖추는데 손색이 없더니 남편이 죽자 3년 상을 마치고 약을 먹고 남편 뒤를 따랐다 한다.

봉명리에는 화양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봉명리 전경

제5장 기산면(麒山面)

기산면은 주 산인 기린봉이 위치하고 봉선지 수로가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구릉지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자체가 분수령이 되어 동쪽 한산면과 남쪽 화양면, 서쪽 마서면과 서천